잠자고 있는 증권계좌, 혹시 모를 보너스를 찾자

금감원, 휴면계좌 찾아주기… 10만원 미만 896만개 518억

소멸시효 없어 언제든지 청구… 미수령 주식도 주인 찾아줘

여러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많을 것이다. 거래를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은 계좌도 있어 찾는 것은 이미 포기 한 상태.

은행은 1만원 이하는 1년 이상, 5만원까지는 2년 이상, 10만원 이하는 3년동안 금융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이 된다. 그리고 편입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휴면계좌로 편입된다. 휴면계좌로 편입이 되면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등으로 쓰여 소멸된다.

하지만 휴면계좌에 대한 지급이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이 금액을 찾고 싶으면 해당 은행에 청구를 할 경우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휴면예금을 지급해준다.

증권예탁금은 은행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증권계좌에 예치된 예탁 재산은 소멸시효가 없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그동안 무관심 했던 내 구좌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매매거래 미치 입출금 없이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10만원 미만 소액 비활동계좌(휴면계좌)는 896만개로 잔액은 518억원에 이르고 있다. 10만원 초과 휴면증권계좌까지 합하면 모두 2000억원 상당이다. 하루 기관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들인 주식 액수에 근접한 수준이다. 2006년 3월말 609만개, 387억원에 비해 각각 47.1%, 3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원을 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도 상당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감원 등은 소액 휴면계좌 뿐아니라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로 나섰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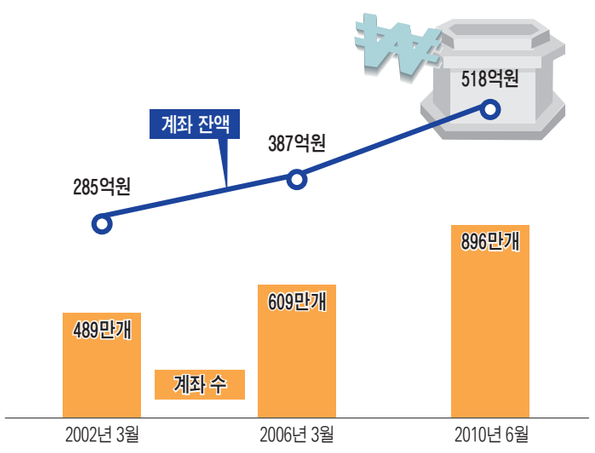
또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도 주인을 찾아준다. 미수령 주식의 경우 증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주소가 바뀌는 경우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해 자주 발생한다.

휴면계좌를 확인하고 싶으면 먼저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증권사 통합계좌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예탁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한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와 거래를 했다면 확인이 쉽지는 않다. 휴면계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투자자가 증권사의 통합계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예탁재산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조회·관리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휴면증권계좌로 관리되는 현행 통합계좌와 매매내용 통지가 반송되는 등 고객에게 잔액통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고객 확인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사들도 휴면계좌를 활성화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10일까지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는 고객은 6개월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 휴면계좌 추이

대형마트 '빅3' 신선식품 할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26일부터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뚝 떨어진 가운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3'가 신선식품 할인 경쟁에 나섰다.

이마트는 26일부터 1주일간 채소 시세 급락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농가를 판매 촉진을 통해 돕겠다는 취지로 배추·양파·대파·파프리카 등 채소류 가격을 최대 55%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금(金)배추'로 불렸던 배추는 정상가(포기당 1480원)보다도 54% 저렴한 680원에 내놓았으며 양파(1.5kg 1망)와 대파(700g 1단), 파프리카(1개)도 40~55%가량 할인한 1090원, 900원, 880원에 각각 판매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뛴 달걀은 30개짜리 1판에 3600원에 내놓았다.

롯데마트도 내달 1일까지 파프리카·도토리묵·수박·호주산 흑소 적아이볼 등을 최대 60% 싸게 판매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기획한 제품에 붙이는 '손큰' 브랜드로 파프리카를 마련해 1개당 1000원에 선보였고 일반 도토리묵의 2배 이상 크기인 '손큰 도토리묵'(1kg)은 시세보다 60%가량 싼 2500원에 내놓았다. 특히 '손큰 도토리묵'은 1년 내내 이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계란을 500만개 준비해 26~29일 '착한 계란'이라고 이름 붙이고 싸게 판매한다. 대(大)란 10개짜리 1팩에 1000원으로, 사전 대량 계약을 통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선보인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커피값은 또 인상… 평균 17%

스타벅스 7월부터… 슈머커 11%↑

CNN 머니와 마켓워치는 25일(이하 현지시각) 원자재와 곡물 값이 강세를 이어온 가운데 커피원두 역시 뛰면서 포저스, 던킨 도넛 등을 휘하에 둔 JM 슈머커와 스타벅스 등이 커피값을 또다시 일제히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미국 내 매장에서 커피값을 평균 17% 인상한다면서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미국 매장 커피값을 올리는 것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CNN 머니는 지적했다.

슈머커도 지난해 이후 4번째로 커피 제품값을 평균 11% 인상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로써 슈머커는 지난해 5월 이후 가격을 34% 인상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미국의 또다른 커피 메이커인 그린마운틴도 지난 3일 제품값을 평균 10% 인상했음을 마켓워치는 상기시켰다. 맥스웰 하우스 커피 메이커인 크래프트 푸드도 지난해 10월 이후 커피 값을 3차례에 걸쳐 모두 43% 인상했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개월 사이 아라비카 커피원두가 선물 계약 기준으로 가격이 99% 상승했음을 지적했다. 최근 파운드당 7월 계약분이 2.65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CNN 머니는 이처럼 커피 값이 잇따라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커피 마니아들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국제커피협회(ICO) 분석을 인용해 전세계 원두커피 소비가 지난해 60kg짜리 백으로 기록적인 1억3400만개로 전해에 비해 2.4%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장터 소식

혼수고객에 신세계상품권

광주신세계는 혼수와 화장품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오는 29일까지 200만원 이상 혼수품을 산 고객에게는 10만원어치 신세계상품권을 준다. 300만원 이상은 15만원어치, 500만원 이상은 25만원어치, 1000만원 이상은 50만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세계 포인트카드 구매 영수증과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을 가져와야 한다.

또 신세계카드로 화장품 20만원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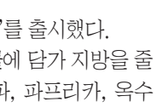
롯데百 바다의 날 수산물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바다의 날(5월31일)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프리미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바다의 날 기념 수산물대전'을 연다.

신선식품 특보 상품전으로 갑오징어 3마리 1만8000원, 전복 10마리 2만3000원, 갓구운 재래구이전장 5000원, 바다원 황태채 200g 1만원, 조림용멸치 700g 1만원에 판매된다.

식품관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지하 1층 물품보관소에서 오뚜기 부침가루를 하루 500명 한정으로 증정한다.

생가득 샐러드바 참치



풀무원식품은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생가득 샐러드바 참치'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물에 담가 지방을 줄인 참치에 양파, 파프리카, 옥수수 등 채소를 곁들여 만들었으며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합성착색료는 첨가하지 않았다. 소비자 가격은 140g짜리 1개에 2800원이다.

'지니 3D 보이스' 출시

현대엠엔소프트는 26일 말 한마디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지니 3D 보이스(GINI 3D VOICE)'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이 지시 단계별로 메뉴명을 읽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제품은 사용자가 등록한 목적지 명만 말하면 자동으로 안내를 시작하는 '지니 원샷(GINI One-Shot)'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소검색, 명칭검색, 잔여거리 등 세부 메뉴들도 음성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국내 음성인식 중 최대 규모인 150만개의 단어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 캔커피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는 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FLO)로부터 인증받은 공정무역 원두를 쓴 캔커피 '칸타타 베스트 컬렉션' 2종을 판매한다. 이 제품은 국내 캔커피 가운데 유일하게 친환경 재배된 원두를 제값을 치르고 산 공정무역 원두만 100% 사용했다고 롯데칠성음료는 설명했다.

2종 가운데 콜롬비아 블렌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를 썼고 브라질 블렌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와 브라질 산토스를 절반씩 섞고 국산 1A등급 우유를 넣었다. 소매가는 240㎖짜리 캔 1개당 13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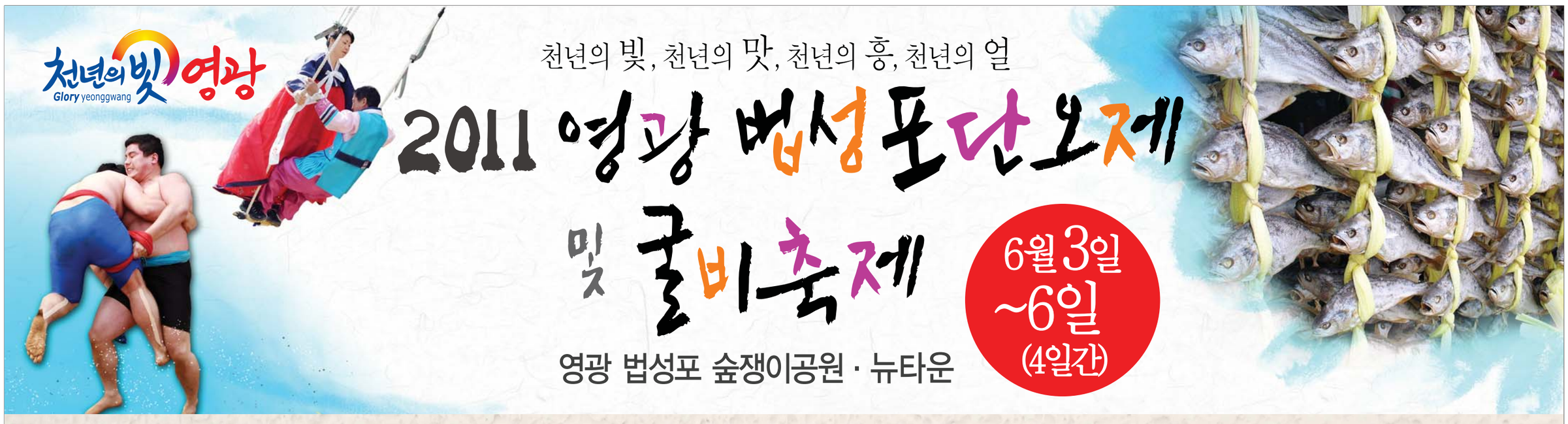
삼성, 올인원 PC 인기

삼성전자는 공간 활용성을 높인 올인원(All-In-One) PC '스마트 One AF315'를 출시했다.

올인원 PC는 데스크톱의 모니터와 본체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군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세련돼 젊은 고객층으로부터 인기가 높다.

이번 제품은 테두리(베젤)를 11㎜로 줄여 화면 집중도를 높였으며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크리스털 프레임을 적용했다.

풀HD TV 수신 및 녹화 기능을 탑재하고 PC용 리모컨,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을 제공해 멀티미디어 성능을 강화했으며 높은 해상도와 넓은 시야각을 구현하는 액티브 셔터글라스 방식을 적용했다.



영 광 군
군수 정기호

영광군의회
의장 이종윤
부의장 김양모
의회운영위원장 나승만
자치행정위원장 양순자
산업건설위원장 박영배
의원 강필구
의원 김봉환
의원 장기소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호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지부장 황길주

농협중앙회종돈사업소
소장 유명상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구희우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영복

영광군산림조합
조합장 정용재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
지사장 변용석

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준화

백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대상

군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황일태

염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병원

굴비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남철

영광종합병원
공립영광노인전문병원
이사장 조용호
병원장 오승균

영광기독·신하병원
이사장 김경옥
기독병원장 이만재